

대학생의 개체화유형과 대인관계문제에 관한 연구

조 윤 주¹⁾

박 장 회²⁾

고려대학교 가정학과

본 연구는 대학생의 개체화유형과 대인관계문제의 관련성을 탐색해보고 이를 통해 대학생들의 건강한 발달을 모색해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내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228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개체화유형과 대인관계문제의 경향을 분석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개체화경향에서는 개체화를 성취한 대학생이 많았으며,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개체화 성취 경향이 높았다. 둘째, 대학생의 대인관계문제 경향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의존성으로 인한 대인관계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개체화유형에서 부모와 정서적인 유대가 적고 자신에 대한 신뢰가 낮은 특성을 지닌 애매형의 대학생들이 대인관계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남학생은 애매형이 가독립형보다 대인관계문제가 높게 나타났고 여학생은 애매형이 개체화형보다 대인관계문제가 높게 나타났다. 넷째, 개체화의 하위영역에서 남학생은 자아신뢰감이 높을수록 여학생은 자아신뢰감과 더불어 부모와의 연결이 높을수록 대인관계문제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개체화의 하위영역 중 자아신뢰감이 남녀 대학생 모두에게서 대인관계문제에 가장 큰 설명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개체화, 대인관계문제

1) 고려대학교 가정학과 박사과정

2) 교신저자 : 고려대학교 가정학과 박사과정, E-mail : goego2@hanmail.net

I. 서론

발달적 관점에서 볼 때 대학생들은 부모에게 의존적이던 청소년기에서 벗어나 자율성을 지닌 성인기로 전환해 가는 시기에 있다¹⁾. 중·고등학교시기까지 부모의 통제 속에서 반복되는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밖에 없었던 이들은 대학생활에 들어서면서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특히 입시위주의 교육제도 하에서 부모의 통제와 간섭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대학생 시기에 들어서면서 자신의 사고와 판단에 의거한 행동의 폭을 넓혀가게 된다. 이에 따라 대학생들은 부모의 영향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되고 스스로 행동하고 책임을 지며 실질적으로 개인의 자율성을 확장하게 된다. 이에 Blos(1979)는 청년기에 부모로부터 분리하여 개체감을 성취하는 것이 자아발달에 중요한 계기가 된다고 보고, 이 시기의 중요한 발달과업으로 분리-개체화를 제시하였다. Blos에 의하면 분리-개체화과정은 청년이 자신의 독자성과 정체감을 발전시키기 위해 유아기에 분리경험을 통해 마음속에 키워둔 부모상을 재통합해나가는 과정이다. 청년은 분리-개체화과정을 통해 유아기와 초기 아동기에 형성되고 내면화된 부모 대상표상으로 부터 벗어나거나 부모 대상표상의 변화를 시도하여 부모 대상표상과 구별되는 자기에 대한 지각을 형성해 나가게 된다. 따라서

청년기에 분리-개체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개인은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에게 의존하게 되고 이들의 자아는 부모로부터 빌린 자아로 남게 된다.

이렇듯 청년기 분리-개체화과정이 자아발달에 통합적인 역할로 작용한다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청년기 분리-개체화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청년기 분리-개체화가 청년의 성격 및 적응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들(Holmbeck & Leake, 1999; Holmbeck & Wandrei, 1993; Lapsley & Edgerton, 2002)은 청년기 분리-개체화가 청년의 건강한 발달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과 연구들은 부모로부터 분리의 측면을 강조하기 때문에 청년기 분리-개체화가 부모-자녀간의 정서적 단절을 의미한다는 왜곡된 견해를 갖게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부모-자녀관계의 중요성이 간과될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청년기 자녀와 부모의 정서적 연결에 관한 연구들(장휘숙, 2002; De Vet, 1997; Kenny, 1987; Kerns & Stevens, 1996; Wierson, Forehand, Fauber, & McCombs, 1989)은 부모와의 심리적 연결이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자율성을 성취하고자하는 시기에도 중요하며, 부모와의 심리적 연결과 부모로부터 분리는 상반된 개념이 아닌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념이라는 것을 보고하고 있다. 이는 분리-개체화가 부모와의 심리적 단절이 아닌 부모와의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발달되는 것임을 시사해 준다. 이에 Grotevant와 Cooper(1985, 1986)는 가족구성원의 분리와 연결의 상호작용이라는 관점에서 ‘분리-개별화’를 ‘개체화’라는 용어로 재구성하고(백지숙, 도현심, 박성연, 1998), 부모와의 지지적이고 밀접한 관계 속에서 개체감을 확립

1) Erickson의 관점에서 볼 때 대학생은 발달적으로 청년기(young adulthood)에 포함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학생은 이 시기에도 학업의 지속으로 인해 부모로부터 경제적, 심리적으로 실질적인 독립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연구에서 이들은 청소년후기 또는 청년기로 구분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발달상 청년기에 있다고 보았다.

하는 것을 청년기의 주요과제로 제시하였다. 그 후 많은 연구들(Fuhrman & Holmbeck, 1995; Lapsley & Edgerton, 2002; Quintana & Kerr, 1993)이 이들의 관점을 지지하였고 청년기 개체화에 관한 관심 역시 증가되고 있으나, 이제까지 청년기 개체화연구에서 사용된 대표적인 척도들은 부모와의 연결과 분리를 각각 독립적으로 측정하기 때문에 부모와의 연결과 분리의 상호작용을 측정하지 못하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백지숙, 도현심, 박성연, 1998; Baik, 1997). 이에 Baik(1997)은 부모와의 연결과 분리의 상호작용 맥락에서 청년기 개체화를 살펴보기 위한 새로운 척도를 개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에서도 한국청소년후기개체화척도(백지숙, 도현심, 박성연, 1998)가 개발되었다. 그러나 부모와의 연결과 분리의 상호작용이라는 측면에서 청년기 개체화를 살펴보는 것은 초기단계에 있어 이에 관한 연구는 여전히 체계적이지 못하고 미흡하여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생이라는 시기적 특징 중 또 다른 하나는 외적 관계의 확장이다. 대학생들은 사회화 영역이 확장되고 시야가 넓어지면서 자의에 의해서든 타의에 의해서든 많은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이로 인해 이들은 삶의 영역에서 개인으로서 ‘나’의 비중이 작아지면서 ‘우리’ 속의 ‘나’의 비중이 커져 감을 실감하게 된다. 이 때 타인과의 관계에서 친밀감을 얻지 못하면 고립감의 위기를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대학생들은 대인과의 상호관계 속에서 건강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발달과제를 수행해야 한다(권석만, 1995). 대인관계는 가역적인 상호관계이기 때문에(Horowitz, 1996), 대인관계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타인의 삶 뿐 아니라 자신의 삶을 적박하게 이끌 수 있다. 또한 대인관계

에서의 문제는 우울증, 사회적 불안, 성격장애 같은 정신 병리증상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Pincus & Wiggins, 1990; Soldz, Budman, Demby, & Merry, 1993). 때문에 개인이 타인과 조화로운 관계를 영위할 때 자신을 더욱 가치 있게 보게 되고, 건강하고 긍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개인의 활동범위가 점차 넓어지는 대학생들에게 있어 대인관계문제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될 것으로 생각된다.

대인관계의 시초라 할 수 있는 타인과의 관계성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시작된다(Dollard & Miller, 1963). 부모는 인간이 태어나 처음으로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대상으로, 부모와의 관계는 개인의 행동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친다(Medinnus, 1967). 뿐만 아니라 부모와의 관계는 자아와 타인에 대한 지각 형성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Collins & Read, 1990), 이러한 자아와 타인에 대한 지각은 대인관계의 기초가 된다. 이는 대인관계문제가 단순히 상호관계적인 기술의 문제라기보다는 자아상과 같은 개인 내적 기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임(Smith & Greenberg, 1981)을 시사한다. 따라서 대인관계문제는 개인 내적 기제의 형성에 기반이 되는 부모와의 관계적 맥락 내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대학생들은 부모와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이를 통해 개체감을 확립하는 시기에 있기 때문에 부모와의 관계적 맥락에서 이들의 개체화 경향과 대인관계 문제를 결부시켜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와의 연결과 분리라는 관계적 맥락에서 대학생들의 개체화 경향을 살펴보고 이를 이들의 대인관계문제와 관련지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청년기 개체화와 대인관계 문제에 관한 보다 구

체적인 관련성을 탐색하여 건강한 발달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는데 본 연구의 의의를 두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대학생의 개체화유형의 경향성은 어떠한가, 이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2. 대학생의 대인관계문제 경향성은 어떠한가, 이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3. 대학생의 대인관계문제는 개체화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4. 대학생의 대인관계문제는 개체화의 하위 영역들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5. 대학생의 대인관계문제에 대한 개체화의 설명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 소재 D대, K대, S대에 재학 중인 1, 2, 3, 4학년 학생 22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에 제시하였다.

측정도구

한국청소년후기개체화 척도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개체화를 측정하기 위해 백지숙, 도현심 및 박성연(1998)이 개발한 한국청소년후기개체화 척도를 사용하였다. 한국청소년후기개체화 척도는 총 16문항으로 이루어진 자기 보고식 척도로, 연결의 영역인 부모와의 연결, 분리의 두 영역인 부모의 통제와 자아신뢰감으로 구성되었다. 부모와의 연결(7문항)은 자녀와 부모사이에 지속되는 연결의 관계를 의미한다. 부모의 통제(4문항)는

표 1. 연구 대상의 일반적인 특성

변 수	구 분	빈도(%)	변 수	구 분	빈도(%)
성 별	남학생(평균 22.88세)	95(41.7)	학 년	1학년	41(18.0)
	여학생(평균 20.70세)	133(58.3)		2학년	84(36.8)
				3학년	44(19.3)
				4학년	51(22.4)
				기타 무응답	8(3.5)
부모의 교육수준	아버지	어머니	부모의 직업	아버지	어머니
	중졸이하	24(10.5)		무직 및 기타	19(8.3)
	고졸	85(37.3)		생산노무직	21(9.2)
	대졸	77(33.8)		판매/서비스직	35(15.4)
	대학원 졸	31(13.6)		사무직	62(27.2)
	무응답	11(4.8)		전문기술직	33(14.5)
				관리/전문직	52(22.8)
				무응답	6(2.6)
					7(3.1)

자녀의 관점에서 부모가 원하는 방식대로 자녀의 행동을 조종하려는 부모의 행동을 의미한다. 자아신뢰감(5문항)은 일련의 일을 수행함에 있어 자신의 힘을 믿고 스스로 처리해 갈 수 있다는 신념을 의미한다.

문항별 반응양식은 Likert식 4점 척도로 ‘별로 그렇지 않다(1점)’부터 ‘항상 그렇다(4점)’까지 반응하도록 하였다. 부정문항과 부모의 통제의 4문항은 역 채점을 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와의 연결과 자아신뢰감이 높고 부모의 통제가 낮음을 의미한다. 개체화유형의 분류에는 개체화의 하위영역인 분리를 부모의 통제와 자아신뢰감으로 구분하여 첫째, 부모와의 연결과 통제에 따라 둘째, 부모와의 연결과 자아신뢰감에 따라 유형화하는 두 가지 방법이 사용됐다. 개체화유형의 분류방법으로는 평균을 기준으로 부모와의 연결과 분리(통제, 자아신뢰감)를 이분한 뒤 부모와의 연결과 분리의 점수가 평균이상인 경우에 개체화형, 연결의 점수가 평균미만이고 분리의 점수가 평균이상인 경우에 가독립형, 연결의 점수가 평균이상이고 분리의 점수가 평균미만인 경우에 의존형, 연결과 분리의 점수가 평균미만인 경우에 애매형으로 분류하는 방법이 사용됐다. 각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면(Baik, 1997), 개체화형은 부모와 심리적으로 매우 연결되어있는 동시에 부모로부터 분리의 정도도 높아 부모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부모와 자신의 삶 사이에 분명한 한계를 유지하며, 가독립형은 부모와의 심리적인 연결이 낮으면서 부모로부터 분리의 정도가 높아 부모와 정서적 거리감을 느끼고 자신의 독립만을 주장하는 특성을 나타낸다. 의존형은 부모와의 심리적인 연결이 높은 반면 부모로부터 분리의 정도가 낮아 부모와의 정서적 친밀감에 안주하면서

독립된 성인으로 성장해야할 노력을 미루고, 애매형은 부모와의 심리적인 연결이 낮은 동시에 부모로부터의 분리의 정도도 낮아 부모와 정서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일상의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의존하는 특성을 나타낸다.

백지숙, 도현심 및 박성연(1998)이 보고한 척도의 신뢰도는 부모와의 연결 Cronbach' α = .90, 부모의 통제 .76, 자아신뢰감 .81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와의 연결 Cronbach' α = .88, 부모의 통제 .74, 자아신뢰감 .83이었으며 척도 전체의 신뢰도는 .81로 나타났다.

한국판대인관계문제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문제를 측정하기 위해 IIP(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Horowitz, Rogenberg, Baer, Ureno, & Villasenor, 1988)를 타당화한 한국판대인관계문제(김정옥, 권석만, 정남운, 2000)의 요인을 본 연구자들이 재추출하고 재명명하는 과정을 거쳐 사용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자들은 주성분분석과 varimax 회전법을 적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scree 검사를 통하여 여섯 개의 요인을 추출하였으며, 각각의 추출된 요인들은 요인 부하량 .40이상을 기준으로 하였다. 이 때 추출된 여섯 요인은 검사자간의 안면타당도 과정을 거쳐 비사교성, 불신-냉담, 비주장성, 지배-예민, 의존성, 과관용으로 명명하였다. 이들 요인이 전체 공통분산에 대해 갖는 누적분산 비율은 47.06%로 나타났다. 본 척도는 총107 문항으로 구성되어져 있으며, 대학생들이 스스로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문항별 반응양식은 Likert식 5점 척도로 ‘전혀 아니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 반응하도록 하였으며 일부문항은 역 채점을 하였다. 각 요인을 구

체적으로 살펴보면 요인1은 비사교성(24문항)으로 대인관계 상황을 어려워하며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특성을 나타낸다. 요인2는 불신-냉담(17문항)으로 타인을 회피적이고 신뢰하지 못하며 두려워하는 성향에 의거하여 자기표현에 서투른 특성을 나타낸다. 요인3은 비주장성(20문항)으로 자신의 감정과 의사를 잘 드러내지 못하고 타인의 결정에 영향을 받는 특성을 나타낸다. 요인4는 지배-예민(30문항)으로 타인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성향이 있으며 대인상황에서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나타낸다. 요인5는 의존성(8문항)으로 자신감이 없고 타인의 의사결정에 많은 영향을 받고 타인에게 의지하는 특성을 나타낸다. 마지막 요인6은 과관용(8문항)으로 지나치게 타인에게 관대하고 배려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타인을 우선시 하는 특성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의 신뢰도는 비사교성 Cronbach' α = .94, 불신-냉담 .85, 비주장성 .92, 지배-예민 .92, 의존성 .78, 과관용 .67이었으며, 척도 전체의 신뢰도는 .97로 나타났다.

연구절차

본 연구의 예비조사는 서울시 K대 학생 15명을 대상으로 2004년 11월 15일부터 2004년 11월 19일 사이에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결과 척도내용에서 의미 전달이 명확하지 못한 문항을 수정한 후 본 조사에 들어갔다.

본 조사는 2004년 11월 25일부터 2004년 12월 13일 사이에 실시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해 사전에 담당교수의 허락을 받아 연구자들이 직접 교양과목 시간에 연구에 대한 설명과 함께 설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였으며 설문응

답에 소요된 시간은 약 20-25분이었다. 설문지는 총 270부가 배부되었으며, 이 중 246부가 회수되어 91.11%의 회수율을 보였다. 실제분석에는 회수된 자료 중 응답이 불성실한 설문을 제외하고 228부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통계처리 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둘째, 측정도구의 하위영역을 확인하고 문항을 선별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대학생의 개체화유형과 대인관계문제의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t검증과 χ^2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성별에 따른 개체화유형과 대인관계문제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χ^2 검증과 t검증을 실시하였다.

넷째, 대학생의 개체화유형에 따른 대인관계문제를 살펴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개체화의 하위영역과 대인관계문제간의 상관을 살펴보기 위해 Pearson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대인관계문제에 대한 개체화의 하위영역의 설명력을 살펴보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개체화유형의 경향성

먼저 대학생들의 개체화유형을 분류하기 위해 개체화유형의 분류기준인 개체화의 하위영역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이를 성별에 따라 살펴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부모와의 연결과 자아신뢰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개체화유형의 경향성을 살펴보면, 부모와의 연결과 분리의 한 측면인 부모의 통제를 기준으로 분류한 대학생의 개체화유형은

개체화형(31.6%), 가독립형(25.9%), 의존형(21.9%), 애매형(20.6%)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chi^2=6.63$, $p=.09$). 이에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남학생과 여학생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의존형(14.7%)이 많았으며,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가독립형(11.9%)이 많았다.

부모와의 연결과 분리의 또 다른 측면인 자아신뢰감을 기준으로 분류한 대학생의 개체화

표 2. 개체화하위영역들의 평균, 표준편차 및 성차

	부모와의 연결	부모의 통제	자아신뢰감
	M(SD)	M(SD)	M(SD)
전 체	19.69(4.42)	11.77(2.60)	14.66(3.07)
남학생	20.40(4.08)	11.54(2.60)	16.01(2.94)
여학생	19.19(4.60)	11.94(2.60)	13.70(2.79)
t값	2.05*	-1.15	6.04***

* $p < .05$ *** $p < .001$

표 3. 성별에 따른 연결과 부모의 통제에 의한 개체화유형의 빈도, 백분율 및 성차

	애매형(%)	의존형(%)	가독립형(%)	개체화형(%)	χ^2 값
남학생	18(18.9)	29(30.5)	18(18.9)	30(31.6)	8.73*
여학생	29(21.8)	21(15.8)	41(30.8)	42(31.6)	
전 체	47(20.6)	50(21.9)	59(25.9)	72(31.6)	

* $p < .05$

표 4. 성별에 따른 연결과 자아신뢰감에 의한 개체화유형의 빈도, 백분율 및 성차

	애매형(%)	의존형(%)	가독립형(%)	개체화형(%)	χ^2 값
남학생	8(8.4)	14(14.8)	28(29.5)	45(47.4)	23.48***
여학생	43(32.3)	27(20.3)	27(20.3)	36(27.1)	
전 체	51(22.4)	41(18.0)	55(24.1)	81(35.5)	

*** $p < .001$

유형은 개체화형(35.5%), 가독립형(24.1%), 애매형(22.4%), 의존형(18.0%)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chi^2 = 15.30, p < .01$). 이를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학생과 여학생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개체화형(20.3%)과 가독립형(9.2%)이 많았다. 그러나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애매형(23.9%)과 의존형(5.5%)이 많았다.

대인관계문제의 경향성

대학생의 대인관계문제의 경향을 살펴보고 이러한 경향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t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대학생의 대인관계문제는 의존성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의존성이 높았다.

개체화유형과 대인관계문제

대학생의 개체화유형에 따라 대인관계문제가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일원분산분

석을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증으로 Scheffé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 때 개체화유형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개체화유형에 따른 대인관계문제의 분석은 전체 대학생뿐 아니라 남학생과 여학생을 각각 분리하여 분석하였다. 이 방법은 이 후 모든 분석에 적용된다.

먼저 부모와의 연결과 통제를 기준으로 분류한 대학생(전체)의 개체화유형에 따라 대인관계문제(전체)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F=1.41, p=.24$). 이에 대인관계문제를 하위영역별로 살펴보았을 때에도 개체화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를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학생($F=.87, p=.46$)과 여학생($F=2.76, p=.05$) 모두에게서 개체화유형에 따른 대인관계문제(전체)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대인관계문제를 하위영역별로 살펴보았을 때에도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에게서 개체화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으로 부모와의 연결과 자아신뢰감을 기준으로 분류한 대학생(전체)의 개체화유형에 따라 대인관계문제(전체)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표 6에 제

표 5. 대학생들의 대인관계 문제의 평균, 표준편차 및 성차

	비사교성	불신-냉담	비주장성	지배-예민	의존성	과관용	대인관계문제 (전체)
	M(SD)	M(SD)	M(SD)	M(SD)	M(SD)	M(SD)	M(SD)
전체	53.16(14.66)	40.86(9.48)	53.65(13.67)	77.55(17.57)	21.02(5.31)	20.36(4.38)	266.61(52.58)
남학생	52.29(14.08)	40.77(10.86)	52.29(14.08)	78.52(17.92)	19.18(5.27)	20.61(4.50)	267.21(58.56)
여학생	51.69(13.45)	40.92(8.75)	54.62(13.35)	76.86(17.34)	21.88(5.19)	20.19(4.30)	266.17(48.09)
$t_{값}$	.18	-.12	-1.26	.70	-2.9**	.71	.15

** $p < .01$

표 6. 부모와의 연결과 자아신뢰감에 의한 대학생의 개체화유형에 따른 대인관계문제

		비사교성	불신-냉담	비주장성	지배-예민	의존성	과관용	대인관계문제 (전 체)
		M(SD)	M(SD)	M(SD)	M(SD)	M(SD)	M(SD)	M(SD)
남 학 생	애매형	66.25(10.95)	49.00(8.47)	62.75(7.76)	90.88(9.11)	24.50(4.28)a	23.75(3.43)	317.13(34.53)a
	의존형	57.36(14.81)	42.79(7.36)	58.71(10.45)	83.29(13.22)	23.29(4.21)a	20.50(4.01)	285.93(37.82)ab
	가독립형	50.14(12.03)	37.64(10.09)	47.89(13.59)	73.82(18.25)	18.32(4.33)b	18.96(4.30)	246.79(53.19)b
	개체화형	55.73(18.36)	40.62(11.93)	51.18(14.89)	77.76(19.17)	18.82(5.42)b	21.11(4.63)	265.22(64.37)ab
	F 값	2.39	2.59	3.75*	2.37	6.34**	2.90*	3.90*
여 학 생	애매형	57.81(14.80)a	44.53(9.05)a	60.74(12.74)a	82.72(19.45)	24.56(5.32)a	20.35(3.86)	290.72(52.98)a
	의존형	50.63(11.78)ab	40.52(5.61)ab	55.59(12.52)ab	71.93(13.22)	23.56(4.41)a	20.52(4.04)	262.74(35.60)ab
	가독립형	48.22(12.85)b	39.22(8.79)ab	50.48(12.31)b	76.85(17.39)	19.33(4.50)b	19.19(4.23)	253.30(47.86)b
	개체화형	47.78(11.06)b	38.19(7.80)b	49.69(12.77)b	73.58(15.94)	19.33(3.93)b	20.50(5.06)	249.08(39.13)b
	F 값	5.07**	4.67**	6.23**	2.92*	12.35***	.62	6.71***
전 체	애매형	59.14(14.50)a	45.24(9.03)a	61.06(12.06)a	84.00(18.39)	24.55(5.13)a	20.88(3.97)	294.86(51.18)a
	의존형	52.93(13.11)ab	41.29(6.27)ab	56.66(11.82)ab	75.80(14.15)	23.46(4.30)a	20.51(3.98)	270.66(37.59)ab
	가독립형	49.20(12.36)b	38.42(9.42)b	49.16(12.92)b	75.31(17.73)	18.82(4.40)b	19.07(4.23)	249.98(50.28)b
	개체화형	53.16(14.66)ab	40.86(9.48)b	50.52(13.92)b	75.90(17.82)	19.05(4.80)b	20.84(4.88)	258.05(54.89)b
	F 값	4.48**	5.73**	10.13***	3.04*	22.08***	2.20	8.26***

* $p < .05$ ** $p < .01$ *** $p < .001$

ab: 같은 문자끼리는 유의한 차이가 없음

시된 바와 같이 애매형이 가독립형과 개체화형보다 대인관계문제(전체)가 높았다.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애매형이 가독립형보다 비사교성이 높았으며, 애매형이 가독립형과 개체화형보다 불신-냉담과 비주장성이 높았다. 그리고 애매형과 의존형은 가독립형과 개체화형보다 의존성이 높았다. 지배-예민은 일원분산분석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개체화유형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한 사후분석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과관용은 개체화유형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이를 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남학생은 애매형이 가독립형보다 대인관계문제(전체)가 높게 나타났다.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애매형과 의존형이 가독립형과 개체화형보다 의존성이 높았다. 비주장성과 과관용은 일원분산

분석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개체화유형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한 사후분석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비사교성, 불신-냉담, 지배-예민은 개체화유형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여학생은 애매형이 가독립형과 개체화형보다 대인관계문제(전체)가 높았다.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비사교성과 비주장성 애매형이 가독립형과 개체화형보다 높았다. 그리고 불신-냉담은 애매형이 개체화형보다 높았으며, 의존성은 애매형과 의존형이 가독립형과 개체화형보다 높았다. 지배-예민은 일원분산분석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개체화유형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기 위한 사후분석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과관용은 개체화유형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개체화의 하위영역들과 대인관계문제

개체화의 하위영역들이 대학생의 대인관계
문제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표 7. 대학생의 개체화와 대인관계문제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남 학 생	(1) 부모와의 연결	1.00								
	(2) 부모의 통제	-.02	1.00							
	(3) 자아신뢰감	.35**	.11	1.00						
	(4) 비사교성	.07	.02	-.24*	1.00					
	(5) 불신-냉담	.06	-.03	-.29**	.92**	1.00				
	(6) 비주장성	.01	-.09	-.38**	.72**	.78**	1.00			
	(7) 지배-예민	.02	-.10	-.28**	.62**	.62**	.58**	1.00		
	(8) 의존성	-.05	-.20	-.56**	.60**	.60**	.65**	.53**	1.00	
	(9) 과관용	.09	-.16	-.17	.58**	.56**	.69**	.59**	.48**	1.00
	(10) 대인관계문제(전체)	.04	-.08	-.36**	.90**	.91**	.86**	.83**	.73**	.74**
여 학 생	(1) 부모와의 연결	1.00								
	(2) 부모의 통제	.19*	1.00							
	(3) 자아신뢰감	.21*	-.01	1.00						
	(4) 비사교성	-.30**	-.03	-.26**	1.00					
	(5) 불신-냉담	-.28**	-.01	-.30**	.86**	1.00				
	(6) 비주장성	-.24**	.02	-.37**	.49**	.63**	1.00			
	(7) 지배-예민	-.24	-.12	-.07	.55**	.57**	.35**	1.00		
	(8) 의존성	-.19*	-.06	-.52**	.41**	.49**	.61**	.46**	1.00	
	(9) 과관용	.02	.05	.03	.16	.22**	.41**	.48**	.43**	1.00
	(10) 대인관계문제(전체)	-.30**	-.05	-.31**	.82**	.87**	.75**	.81**	.68**	.51**
전 체	(1) 부모와의 연결	1.00								
	(2) 부모의 통제	.10	1.00							
	(3) 자아신뢰감	.30**	.01	1.00						
	(4) 비사교성	-.12	-.02	-.19**	1.00					
	(5) 불신-냉담	-.12	-.02	-.28**	.88**	1.00				
	(6) 비주장성	-.15*	-.02	-.38**	.58**	.70**	1.00			
	(7) 지배-예민	-.13	-.11	-.13	.58**	.59**	.45**	1.00		
	(8) 의존성	-.16*	-.10	-.56**	.47**	.53**	.63**	.47**	1.00	
	(9) 과관용	.05	-.04	-.04	.36**	.38**	.47**	.57**	.48**	1.00
	(10) 대인관계문제(전체)	-.15*	-.07	-.30**	.86**	.89**	.80**	.81**	.69**	.62**

* $p < .05$ ** $p < .01$

Pearson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대학생(전체)의 대인관계문제(전체)는 개체화에서 부모와의 연결 그리고 자아신뢰감과 부적상관이 있었다. 즉, 부모와의 심리적인 연결이 높은 대학생과 자아신뢰감이 높은 대학생일수록 대인관계문제가 낮았다. 이를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부모와의 심리적인 연결이 높은 대학생일수록 비주장성과 의존성이 낮았으며, 자아신뢰감이 높은 대학생일수록 비사교성, 불신-냉담, 비주장성, 의존성이 낮았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학생은 개체화의 하위영역 중 자아신뢰감만이 대인관계문제와 부적상관이 있었다. 즉, 자아신뢰감이 높은 남학생일수록 대인관계문제가 낮았다.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자아신뢰감이 높은 남학생일수록 비사교성, 불신-냉담, 비주장성, 지배-예민, 의존성이 낮았다. 여학생의 경우에는 부모와의 연결과 자아신뢰감의 두 영역이 대인관계문제와 부적상관이 있었다. 이를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부모와의 연결과 자아신뢰감은 비사교성, 불신-냉담, 비주장성, 의존성과 부적 상관이 있었다. 즉, 부모와의 심리적 연결이 높은 여학생과 자아신뢰감이 높은 여학생일수록 비사교성, 불신-냉담, 비주장성, 의존성이 낮았다.

그러나 부모의 통제는 부모와의 연결과 자아신뢰감과 달리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에게서 대인관계문제와 유의한 상관이 없었다.

대인관계문제에 대한 개체화의 설명력

대학생의 대인관계문제에 대한 개체화의 하위영역들의 설명력을 살펴보기 위해 대인관계문제와 유의한 상관을 있었던 부모와의 연결과 자아신뢰감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때 독립변인들 간의 상관이 낮았기 때문에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표 8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개체화의 하위영역 중 자아신뢰감만이 대학생(전체)의 대인관계문제(전체)에 대해 9%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자아신뢰감은 의존성에 31%로 가장 높은 설명력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비주장성에 14%, 불신-냉담에 8%, 비사교성에 4%의 순으로 높은 설명력을 보였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학생은 개체화의 하위영역 중 자아신뢰감만이 대인관계문제에 유의한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아신뢰감은 대인관계문제(전체)에 약 13%의 설명력이 있었다. 이를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의 자아신뢰감은 의존성에 32%, 불신-냉담에 15%, 비주장성에 9%, 지배-예민에 8%, 비사교성에 6%의 설명력이 있었다. 남학생과 달리 여학생에서는 자아신뢰감과 함께 부모와의 연결이 대인관계문제(전체)에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자아신뢰감은 대인관계문제(전체)에 9%의 설명력을 나타냈으며, 부모와의 연결이 추가되면서 15%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비사교성에서는 자아신뢰감이 8%의 설명력을 나타냈으며, 부모와의 연결이 추가되면서 12%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불신-냉담에 있어서는 자아신뢰감이 9%의 설명력을 나타냈으며, 부모와 연결이 추가되면서 15%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비주장성에 대해서는 자아신뢰감이 14%의 설명력이 있었으며 부모와의 연결이 추가되면서 17%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의존성에 대해서는 자아신뢰감이 27%의 설명력을 나타냈고, 지배-예민에 대해서는 부모와의 연결이 6%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이때, 남학생의 자

표 8. 대학생의 대인관계 문제에 대한 개체화의 단계적 회귀분석

	종속변인	독립변인	<i>b</i>	β	<i>F</i>	전 체
남 학 생	비사교성	자아신뢰감	-1.30	-.24*	5.60*	$R^2 = .06^*$
	불신-냉담	자아신뢰감	-1.84	-.38***	16.00***	$R^2 = .15^{***}$
	비주장성	자아신뢰감	-1.08	-.29**	8.67**	$R^2 = .09^{**}$
	의존성	자아신뢰감	-1.01	-.56***	42.95***	$R^2 = .32^{***}$
	지배-예민	자아신뢰감	-1.72	-.28**	8.05**	$R^2 = .08^{**}$
	대인관계문제(전체)	자아신뢰감	-7.21	-.36***	14.00***	$R^2 = .13^{***}$
여 학 생	비사교성	자아신뢰감	-.73	-.25**	12.49**	$R^2 = .08^{**}$
		부모와의 연결	-1.01	-.21*	9.58***	$R^2 = .12^*$
	불신-냉담	자아신뢰감	-.76	-.25**	12.93***	$R^2 = .09^{***}$
		부모와의 연결	-.41	-.23**	10.50***	$R^2 = .14^{**}$
	비주장성	자아신뢰감	-1.62	-.34***	21.30***	$R^2 = .14^{***}$
		부모와의 연결	-4.8	-.17**	12.95***	$R^2 = .17^*$
	의존성	자아신뢰감	-.96	-.52***	42.21***	$R^2 = .27^{***}$
	지배-예민	부모와의 연결	-.91	-.24**	8.04**	$R^2 = .06^{**}$
전 체	대인관계문제(전체)	자아신뢰감	-4.36	-.25**	13.51***	$R^2 = .09^{***}$
		부모와의 연결	-2.61	-.25**	11.74***	$R^2 = .15^{**}$
	비사교성	자아신뢰감	-.89	-.19**	8.11**	$R^2 = .04^{**}$
	불신-냉담	자아신뢰감	-.85	-.28***	18.67***	$R^2 = .08^{***}$
	비주장성	자아신뢰감	-1.70	-.38***	38.36**	$R^2 = .15^{***}$
	의존성	자아신뢰감	-.97	-.56***	115.15***	$R^2 = .31^{***}$
	대인관계문제(전체)	자아신뢰감	-5.22	-.30***	23.03***	$R^2 = .09^{***}$

* $p < .05$ ** $p < .01$ *** $p < .001$

아신뢰감과 여학생의 자아신뢰감, 부모와의 연결은 모두 대인관계문제에 부적인 영향력을 나타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부모와의 관계적 맥락에서 대학생들의 개체화유형과 대인관계문제의 경향을 살펴보고 이 둘 간의 관련성을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논의하였다.

첫째, 부모와의 연결과 자아신뢰감을 기준으로 분류한 대학생의 개체화유형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대학생의 개체화유형은 개체화형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가독립형, 애매형, 의존형의 순으로 많았다. 이는 많은 대학생들이 부모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자신에 대한 높은 신뢰감을 형성하며, 개체감을 성취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와 달리 부모와의 연결과 통제를 기준으로 분류한 대학생의 개체화유형은 개체화형, 가독립형, 의존형, 애매형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의 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통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더라도 자녀에 대한 통제를 지속한다(나유미, 임연진, 2003). 이러한 문화적 특성은 자녀의 개체화 발달에도 영향을 미쳐 부모와의 연결과 통제를 기준으로 분류한 개체화유형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학생의 개체화유형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부모와의 연결과 통제를 기준으로 분류한 개체화유형에서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의존형이 많았으며,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가독립형이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부모와의 연결과 통제를 더 많이 지각함을 알려주는 것으로, 이는 아들이 딸에 비해 부모의 통제를 더 많이 지각한 연구들(노경선, 허묘연, 홍현주, 2003; 최보가, 손낙주, 1998; 임정하, 2003)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유순하고 순종적인 성향을 띠는 딸이 부모의 통제를 어느 정도 순응하며 받아들이는 반면 자율적, 독립적, 주체적 성향을 띠는 아들은 부모의 관심과 통제를 자신의 자율성과 독립성에 대한 간섭으로 여겨 민감하게 지각하기 때문에 부모와의 연결과 통제를 높게 지각하는 의존형이 많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부모와의 연결과 자아신뢰감을 기준으로 분류한 개체화유형에서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개체화형과 가독립형이 많았고,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애매형과 의존형이 많았다.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증가하고 교육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남성을 도구적 존재로 여성을 표현적 존재로 보는 전통적 시각이 변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모는 아들에게는 자율성과 독립성을 격려하는 반면, 딸에게는 의존적이고 순종적인 특성을 격려하는 양육태도를 보인다(김희진, 1995; 이옥, 장혜경, 1995).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남아의 사회화 과정에서 독립, 개체화, 행위의 주체적 특성을 중시하고 자율성과 독립성을 길러 주고자하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남학생으로 하여금 자신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갖는데 영향을 미쳐, 부모와의 연결의 정도에 상관없이 자신에 대한 신뢰를 높게 지각하는 개체화형과 가독립형이 많았던 결과로 이어졌다고 풀이할 수 있다.

둘째, 대학생의 대인관계문제의 경향을 살펴본 결과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의 의존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전통적인 성 역할 방식에서 여성들이 독립적인 특성보다는 의존적인 특성을 답습하기 쉽다(김혜숙, 1992)는 점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대인관계문제에서 의존성의 문제는 지나치게 타인 지향적이며 독립적이지 못한 특성을 나타내는 만큼, 스스로 독립적으로 일을 처리해 나갈 수 있다는 믿음이 적은 여학생의 특성이 대인관계에서 남학생보다 의존적인 성향으로 인한 문제를 많이 야기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의존성의 문제는 본 연구에서 연결과 자아신뢰감을 기준으로 한 개체화유형에서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들이 의존형이 많았던 결과와 그

맥을 같이한다.

셋째, 대학생의 대인관계문제는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부모와의 연결과 통제를 기준으로 분류한 개체화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와 관련하여 부모와의 연결과 통제에 의한 개체화유형과 청년기 자아정체감을 탐색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개체화유형에 따른 차이가 있거나(백지숙, 1999), 차이가 없는(옥경희, 1999) 상반된 결과를 보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연구결과에 일관성이 없는 것은 부모의 통제가 본질적으로 부정적인 것 혹은 긍정적인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가치중립적인 특성이 있다(박영애, 1995)는 점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모의 통제는 자녀가 어떻게 받아 들이냐에 따라 부모와의 분리로 또는 연결로 받아들여 질 수 있다. 만약 자녀가 부모의 통제를 자신의 자율성에 대한 간섭으로 여긴다면 부모의 통제가 적은 것을 부모로부터의 분리로 받아들일게 될 것이다. 그러나 자녀가 부모의 통제를 자신에 대한 지지와 관심으로 여긴다면, 오히려 부모의 통제가 적은 것을 부모와의 연결이 적은 것으로 받아들일게 될 것이다. 따라서 개체화에서 부모의 통제를 부모로부터 분리의 영역으로 단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보인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부모들은 자신과 자녀를 하나로 인식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자녀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녀를 간섭하고 통제하는 것을 당연시여기며, 자녀의 성장 후 까지도 지속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문화적 특성은 자녀로 하여금 부모의 통제를 자신을 위한 부모의 애정과 관심의 표현으로 받아들일게도 한다(임정하, 2003). 따라서 청년기 개체화에서 분리의 측면을 부모의 통제로 측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이는 추후 연

구를 통해 보다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부모와의 연결과 자아신뢰감에 의한 개체화유형에 따른 대학생의 대인관계문제는 애매형이 개체화형과 가독립형보다 대인관계문제가 높았다.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애매형이 개체화형과 가독립형보다 불신-냉담의 문제가 높았으며 비주장적인 문제가 높았다. 그리고 애매형과 의존형은 개체화형과 가독립형보다 의존적이었으며, 애매형은 가독립형보다 비사교적이었다. 요약하면, 자아신뢰감의 축으로 구분되는 애매형과 가독립형의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난 반면 부모의 연결의 축으로 구분되는 개체화유형들 간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의 대인관계 문제에서의 차이가 자아신뢰감에서 기인된 것임을 알려주는 것으로, 이는 대학생의 발달적 특성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대학생들은 스스로 생각하고 주도적으로 행동해 나가면서 자율권을 확립하고 부모의 영향에서 비교적 자유로워지는 시기에 있다(Jaffe, 1998). 따라서 이들의 대인관계문제에서 부모와의 관계적 특성들도 중요하지만 대학생들의 자아감, 자존감 같은 내적 특성들이 보다 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자아신뢰감이 대학생들의 대인관계문제에서 가장 큰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회귀분석의 결과는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해 준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학생은 애매형이 가독립형 보다, 여학생은 애매형이 개체화형보다 대인관계문제가 높았다. 애매형이 개체화형보다 부모와의 심리적 연결이 낮고 분리의 측면인 자아신뢰감도 낮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결과는 여학생의 경우 대인관계문제에서 자아신뢰감 뿐 아니라 부모와의

심리적 연결 역시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나타내준다. 이는 여자 대학생들에게서만 애착과 분리-개체화간에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난 선행연구(Schultheiss & Blustein, 1994)와 일맥상통하며, 여성은 '관계'의 측면에서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기 때문에 여성의 심리적 발달에서 타인과의 유대감이나 관계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견해(Gilligan, 1982)를 지지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넷째, 개체화의 하위 영역들과 대학생의 대인관계문제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자아신뢰감이 높을수록 대인관계 문제가 낮았다.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자아신뢰감이 높을수록 비사교성, 불신-냉담, 비주장성, 지배-예민, 그리고 의존성의 문제가 낮았다. 이는 자신에 대한 신뢰가 높은 사람일수록 대인관계상황에서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엇이든 스스로 처리할 수 있다는 강한 신념을 지닌 사람은 자신을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가치롭게 여기기 때문에 대인관계에서도 보다 수용적이고 신뢰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Baumgarner, 1990; Campbell, 1990). 이들은 타인의 요구에 민감하고 자신의 의사를 잘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비사교적인 문제나 불신-냉담의 대인관계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적을 것이다. 또한 자신에 대한 신뢰가 높다는 것은 스스로 독립적으로 사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Pelham & Swann, 1989), 주체적으로 행동하며 타인에게 자신의 의견과 감정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자아신뢰감이 높을수록 대인관계에서 비주장적이고 의존적이어서 나타나는 문제들은 적을 것이다.

다음으로 개체화에서 부모와의 연결은 여학

생의 대인관계문제와 부적상관이 있었다. 즉, 여학생의 경우 부모와의 심리적 연결이 높을수록 대인관계문제가 적었다.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부모와의 심리적 연결이 높을수록 비사교성, 불신냉담, 비주장성, 의존성과 관련된 대인관계문제가 적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개체화 유형에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부모와의 연결을 높게 지각하는 경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와의 연결이 남학생의 대인관계문제와 유의한 상관이 없었던 것과는 대조된다. 이는 대인관계에 민감하고(Gilligan, 1982) 정서적 유대능력을 많이 발달시키는 여성의 특성(Chodorw, 1989)을 고려해 볼 때, 여학생의 경우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감과 대인관계라는 관계적 유대에서 파생되는 문제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여성에게 있어 부모와의 관계는 남성의 경우보다 성인기의 사회적 관계와 더욱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결과(Parker, Barrett & Hickie, 1992)를 재확인 해 준다.

마지막으로 개체화에서 부모의 통제는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에게서 대인관계문제와 유의한 상관이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신의 방식에 의거한 행동양식을 하는 일이 많아지고 부모의 간섭이나 통제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어지는 대학생이라는 시기적 특성과 연관 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부모가 원하는 방식대로 자녀의 행동을 조종하려는 부모의 통제는 대학생들에게 영향력이 적은 만큼 대학생들이 직면하는 대인간 상호작용 속에서 파생되는 문제들과 관련성을 나타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개체화 영역 중 대인관계문제와 부적상관이 있었던 부모와의 연결과 자아신뢰감이 대인관계문제에 어느 정도의 설명력을 지

니는 지를 살펴본 결과, 자아신뢰감 만이 대학생의 대인관계문제에 유의한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이 지각하는 대인간의 문제가 부모와의 연결이나 통제 같은 부모에 의한 영향보다는 자아신뢰감 같은 자기 자신의 내적 특성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학생의 경우, 개체화 영역 중 자아신뢰감만이 대인관계문제에 유의한 설명력이 나타났던 것에 비해 여학생의 경우에는 자아신뢰감뿐 아니라 부모와의 연결도 대인관계문제에 유의한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인관계에서 남학생의 경우, 자신에 대한 신념이 가장 중요한 요인인데 비해, 타인과의 친밀성이나 정서적인 지지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Schiedel & Marcia, 1985) 여학생의 경우에는 부모와의 연결에서 기인된 정서적인 지지와 유대 역시 의미 있는 요인이 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자아신뢰감은 남녀학생 모두에게서 대인관계의 의존성의 문제에서 가장 큰 설명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신뢰감은 자신의 결정을 신뢰하고 스스로의 문제해결능력을 믿으며 자신의 삶에 대해 주관적이고 자신감 있는 태도의 특성을 나타내는 만큼, 타인에게 지나치게 의존적이고 독립적이지 못한 특성을 나타내는 의존성과는 대조된다. 따라서 이는 자아신뢰감이 의존적인 성향으로 초래되는 대인관계문제에 가장 큰 설명력을 지니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대인관계문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개체화 발달에서 대학생, 특히 남학생의 경우에는 자신을 신뢰할 때 대인관계에서 더욱 적절하게 발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여학생의

경우에는 자신에 대한 신뢰감과 더불어 부모와의 정서적인 연결도 중요하게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즉, 청년기 개체화는 대학생의 대인관계문제에 성별에 따라 다른 특성을 함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청년기 개체화 연구에서 부모와의 연결, 분리의 한 측면에서만 살펴보는 한계에서 벗어나 이 둘의 상호작용의 맥락에서 개체화를 살펴보고, 이와 대인관계문제와의 관련성을 탐색해 봄으로써 청년의 건강한 발달을 모색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특정 지역에 재학하고 있는 소수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대학생뿐 아니라 다양한 지위에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기 개체화와 그들의 대인관계성향을 탐색해본다면 보다 총체적으로 청년기 발달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정옥, 권석만, 정남운 (2000). 한국판 대인관계문제 척도의 개발: 요인구조 및 심리측정적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2(1), 153-175.
- 권석만 (1995). 대학생의 대인관계 부적응에 대한 인지 행동적 설명모형. *학생연구*, 30(1), 38-63.
- 김혜숙 (1992). 성별고정관념, 성 차이와 양성성, 현대사회의 여성과 남성. 아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김희진 (1995). 자녀 양육에 대한 한국과 미국 어머니들의 신념 비교 연구. *유아교육연구*

- 구, 15(2), 5-22.
- 나유미, 임연진 (2003). 자녀의 일상생활에 대한 부모의 관리와 청소년의 일탈행동, 자아 존중감 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4(3), 87-98.
- 노경선, 허묘연, 홍연주 (2003). 청소년기 애착 유형과 부모양육행동에 관한 연구. *대한 신경정신학회지*, 42(1), 116-123.
- 박영애 (1995). 부모의 양육행동 및 형제관계와 아동의 자존감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백지숙 (1999). 후기 청소년의 개체화와 자아정체감의 관계. *아동학회지*, 20(2), 269-277.
- 백지숙, 도현심, 박성연 (1998). 한국청소년후기개체화척도 개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6(10), 89-102.
- 옥경희 (1999). 청년기 자아분화 정도 및 개체화유형과 자아정체감 발달. *학생생활연구*, 6, 17-34. 광주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임정하 (2003). 한국적 양육행동 척도 개발과 타당화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옥, 장혜경 (1995). 청소년 자녀에 대한 아버지 양육태도 관련변인. *교육연구*, 4, 39-58. 덕성여자대학교 교육연구소.
- 장휘숙 (2002). 청년후기의 부모에 대한 애착, 분리-개별화 및 심리사회적 적응.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5(1), 101-121.
- 최보가, 손낙주 (1998). 가정환경, 아동의 자아평가와 학습된 무력감과 인과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6(4), 121-135.
- Baik, J. S. (1997). *Individuation, college adjustment and ego identi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 Baumgardner, A. H. (1990). To know one-self is to like oneself: Self-certainty and self a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1062-1072.
- Blos, P. (1979). *The Adolescent Passage*. NY: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Campbell, J. D. (1990). Self-esteem and the clarity of the self concep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538-549.
- Chodorow, N. (1989). *Feminism and Psychoanalytic Theory*.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 Collins, N. L. & Read, S. J. (1990). Adult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relationship quality in dating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644-663.
- De Vet, K. A. (1997). Parent Adolescent Relationships Physical Disciplinary History and Adjustment in Adolescents. *Family Process*, 36, 311-322
- Dollard, J., & Miller, N. E(1963). *Personality and Psychotherapy: An Analysis in Terms of Learning, Thinking and Culture*. New York: McGraw-Hill.
- Fuhrman, T., & Holmbeck, G. N. (1995). A contextual-moderator analysis of emotional autonomy and adjustment in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66, 793-811.
- Gilligan, C. (1982). *In a different voic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Grotevant, H. D., & Cooper, C. R. (1985). Patterns of interaction in family relationships and the development of identity formation in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56, 415-428.

- Grotevant, H. D., & Cooper, C. R. (1986). Individuation in family relationships. *Human Development*, 29, 82-100.
- Holmbeck, G. N., & Leake, C. (1999). Separation-individuation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in late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8, 563-581.
- Holmbeck, G. N., & Wandrei, M. L. (1993). Individual and relational predictors of adjustment in first yea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0, 73-78.
- Horowitz, L. M. (1996). The study of Interpersonal Problems :A Leary Legac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66(2), 283-300.
- Horowitz, L. M., Rogenberg, S. E., Baer, B. A., Ureno, G., & Villaseñor, V. S. (1988).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Psychometric properties and clinical application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 885-892.
- Jaffe, M. L. (1998). *Adolescence*. N.Y: John Wiley & Sons, Inc.
- Kenny, M. (1987). The extent and function of parental attachment among first-yea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 17-29.
- Kerns, K. A., & Stevens, A. C. (1996). Parent-Child Attachment in Late Adolescence: Links to social relations and personality.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5(3), 323-342.
- Lapsley, D. K., & Edgerton, J. (2002). Separation-individuation, adult attachment style, and college adjustment.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80(4), 484-493.
- Medinnus. G .R. (1967). *Readings in the Psychology of Parent-Child Relations*. John Wiley & Sons Inc.
- Parker, G., Barrett, B., & Hickie, I. (1992). From nature to network: Examining links between perception of parenting received in childhood and social bonds in adulthood.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9, 877- 885.
- Pelham, B. W., & Swann, W. B. Jr. (1989). From self concepts to self-worth: On the sources and structure of global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672-680.
- Pincus, A., & Wiggins, J. S. (1990). Interpersonal problems and conceptions of personality disorders.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4, 342-352.
- Quintana, S. M., & Kerr, J. (1993). Relational needs in late adolescent separation-individuation.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1, 349-354.
- Schultheiss, D. E. P., & Blustein, D. L. (1994). Role of adolescent-parent relationship in college student developmen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1(2), 248-255.
- Soldz, S., Budman, S., Demby, A., & Merry, J. (1993). Representation of personality disorders in circumplex and five-factor space: Explorations with a clinical sample. *Psychological Assessment*, 5, 41-52.
- Schiedel, D. G., & Marcia, J. (1985). Ego identity, Intimacy, Sex role orientation, and gender. *Developmental Psychology*, 21(1), 149-160.
- Smith, T. W., & Greenberg, J.(1981). Depression and self-focused attention. *Motivation and Emotion*, 5, 323-313.
- Wierson, M., Forehand, R., Fauber, R., & McCombs,

A. (1989). Buffering young male adolescents against negative parental divorce influences: The role of good parent-adolescent relations. *Child Study Journal*, 19, 101-115.

1차 원고접수 : 2005. 6. 30.

수정 원고접수 : 2005. 9. 9.

최종 게재 결정 : 2005. 9. 13.

Individuation and Interpersonal Problems of College Students

Yoon-Ju Cho

Jang-Hee Park

Dept. of Home-Economics Korea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dividuation and interpersonal problems of college student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228 college students in Seoul. The individuation of college students was assessed by KLAIQ(Baik, Doh & Park, 1998) and the interpersonal problems of college students were assessed by KIIP(Jung, Kim & Kwon, 2000).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Gender was found to be a significant factor on individuation of college students and independent problems in interpersonal problems. A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individuation was found with the college students of 'Ambiguous status' reporting higher interpersonal problems than the college students of 'individuation status' and 'pseudo autonomous status'. Connectedness with parents and self-confidence among sub-dimensions of individuation were negatively correlated with interpersonal problems of college students. Self-confidence was the strongest predictor of interpersonal problems of college students.

Key words : Individuation, Interpersonal problems.